

21세기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

A study on the strategy of school library development in 21st century

한 윤 옥 (Yoon-Ok Han)*

〈 목 차 〉

- | | |
|------------------------------|------------------------------|
| I. 21세기, 지식기반사회 | III.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내부환경 |
| II.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 1.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 1.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 2. 21세기의 사회적 특성과 학교도서관 봉사 개발 |
| 2. 제도 개선과 정책 확립 | IV. 나오는 말 |
| 3.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 |

초 록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학교도서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배경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조명하고 그러한 사회적 환경하에서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 환경요소를 분석하였다. 외부적 환경요소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방안과 제도개선 및 정책확립,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로서의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내부적 환경요소로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도서관봉사의 개선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발전책의 일부는 아직 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언젠가는 학교도서관이 도달해야 할 발전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21st century is called as a knowledge based society. It means that a society has to build an efficient information system to store and retrieve their knowledge and information. I think a school library is a base educational institution to teach information skill and a student has to be trained very well to treat information in 21st century. However school library has not been developed enough in Korea, and so I suggest the strategy of school library development for the new millennium. For the purposes, I divide the environmental elements of school library into two parts -external and internal elements of school library environment- and examine them to suggest some policies. Even though the suggestions are still a little fantastic in the situation of school library in Korea, they should be objects to be achieved in someday.

*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I. 21세기, 지식기반사회

21세기의 사회적 성격을 일러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예견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일찍이 인류사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흐름으로 선진국에서 일고있는 '지식혁명'을 꼽고 있다. 이것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글로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이어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을 '제5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자원이나 에너지, 노동력,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탄생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선진국에서 최근에 일고 있는 격동적인 변혁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1998, 32-36). 말하자면 이것은 사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역량을 체계화하고 누구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부와 창의력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새로운 흐름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21세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서의 지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식과 혼용되고 있는 정보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구성체가 아니라 점에서 지식과 구분되는 반면에 지식은 정보들이 집합된 상호관련적 체계로서 기본적인 인과구조가 갖추어진 형태로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알려지는 것'으로서 고정된 것이고,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으로서 주어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석호, 1997, 19-20). 결국 정보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인과성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대한 정의 및 지식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도서관이 새로운 천년에도 계속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유용한 지식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차원까지 생각하는 봉사원리 및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디지털 문화혁명에 의한 가상현실(cyber space)과 쌍방향성(interactivity)이다. 우리 인류사회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변화해 왔다. 인류사회를 크게 바꾼 첫 번째의 기폭제가 된 새로운 기술은 증기기관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조용하던 농경사회를 엔진소리 요란한 산업사회로 바꾸었다.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부르는 것이다. 다시 반도체 칩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체만한 컴퓨터는 노트북의 크기로 작아졌고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

동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정보혁명이다. 여기에 가세한 통신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에게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 날개는 우리에게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주었다. 21세기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현실로 인정되고 있는 가상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은연중에 우리 인간들이 품고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표현하여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순간에도 이미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재택근무 및 강의, 원격통신교육, 화상의료진단이나 회의, 인터넷 쇼핑 등 인류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는 가상공간을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쌍방향성은 문화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즉각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전혀 새로운 문화산물을 창출해 내도록 하는 것인데 대표적 산물이 쌍방향(interactive)영화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쌍방향 영화는 관객이 영화를 보며 마우스로 클릭하는데 따라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문학계의 인터랙티브 혁명의 결정판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는 작가가 여러 상황을 독자에게 제시하면 독자가 마우스로 맘에 드는 줄거리와 상황을 선택해서 소설을 재창작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요람에서 자란 N세대는 특히 인터랙티브를 즐기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9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쌍방향 영화 '영 호프의 첫째날'에 기술부족으로 화면과 음향이 일그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보름만에 30만명이 접속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00.1.3. 37면). 이 점 역시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21세기적 특성이다.

학교도서관은 21세기를 이끌어 가며 살아가게 될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이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21세기를 지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청소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21세기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학습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되기 위한 기초적 준비도 안된 곳이 너무 많다. 사회는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고 청소년은 21세기적 산물을 가장 재빠르게 흡수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유독 그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의 심장부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심장이 멎을 일이 아닌가? 이 논문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즉 21세기의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도서관이 새로운 세기에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1세기의 사회적 특성과 학교도서관의 내외부적 환경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1.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라고 본다. 물론 교육법이나 이에 대한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이 도서관의 존재와 활동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고 사회적 제도나 정책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불문법이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조직이나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법에서 학교에 도서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이 교육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합의 아래 학교도서관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비로소 학교도서관을 위한 법이나 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 조문이 있어도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동기유발을 해준다거나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주변환경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전 국민들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법 조문은 실제적으로는 사문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63년에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뒤이어 시행령 제정, 관련 교육법 개정 등 법규부터 시작하여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랐지만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도서관계의 끊임없는 집단적 노력이 있었지만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한 구석에 방치된 책창고인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왜 그런것일까? 왜 끊임없이 법규 개정이나 행정적 조치를 건의해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일까? 왜 학교도서관은 명문화된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소외된채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인것일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면 역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학교도서관 발전 전략의 최우선책은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있다고 본다. 그후 제도개선이나 정책의 향방, 법규개정 등이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학교도서관의 마케팅전략¹⁾과 대내외적 PR

최근에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은 마케팅에 대하여 '기업, 비영리조직 및 정부기관이 각 고객의 욕망을 파악하고 그에 합치된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 혹은 그 전체를 기획 개발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며 각 주체자가 최소비용으로써 최대의 고객만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처리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정익준, 1999, 17-18). 이 정의에 의하면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이념을 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이익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운영하는 비영리조직도 활동의 주체를 이윤 극대화에 두지 않고 자체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쪽에 둔다면 얼마든지 시장성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마케팅을 경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욕구충족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더욱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정익준, 1999, 14-15). 한편 PR은 글자 그대로 공중관계((Public Relation)로서 조직이 그의 사회적 환경이 되는 공중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과 공중사이의 상호이해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방적 설득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나 선전과 구분되며(오두범, 1991, 25)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및 그 결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사실 초기 PR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그것의 편익이나 이익을 알게 만든다든지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 집단을 공고화하며,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조직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경쟁자로부터 고객을 지켜내는 촉진활동을 만들며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조직의 명성을 지켜나가는 역할까지 떠맡게 되었다고 한다(선우동훈, 박기순, 김희진 엮음, 2000, 292-297). 이것은 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도서관은 이용 대중을 향하여 정보와 지식을 매개로 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서 제품으로서의 정보가공, 제공수단으로서의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도서관 이미지 형성과 제고에 힘 쓸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도서관이 어떤 곳이며 이용자에게 어떤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곳인지를 알리고,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용자의 성향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도서관 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비영리성을 내세워 이용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 대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마케팅활동을 하는데 소홀하였다. 특히 21세기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망

1) 학교도서관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변우열(1999), 학교도서관의 마케팅전략.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0(3), 151-173.

에 힘입어 디지털 정보의 전달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약화와 아울러 e-book의 생산이 인터넷산업과 출판업계의 합작으로 우리의 생활에 파고들 기세이며, 데이터 베이스 산업의 발달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해 전파되는 정보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도서관의 전통적 장점을 많이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도서관의 PR에 의한 마케팅 전략(MPR)은 더욱 질실한 발전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MPR이란 PR의 진술적인 도구와 퍼블리시티(publicity)를 접목시켜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MPR을 주도하는 전략이 바로 퍼블리시티로서 이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프레스 킷 배포, 언론인 초청행사, 회사 및 상품에 대한 입술거리 기사의 제공 등으로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가 매체에 실리도록 함으로서 제 3자인 언론인이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기사화될 수 있었다는 신뢰성을 공중에게 심어주어 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퍼블리시티와 병행하여 활용되는 MPR의 전술적 도구에는 주장광고, 컨테스트, 특별행사, 팸플릿, 박람회, 퍼레이드, 페스티벌, 스포츠이벤트, 각종 후원, 시사회, 세미나 등이 있으며 이런 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중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선우동훈, 박기순, 김희진 엮음, 2000, 295-297). 이와 같은 영리기업의 MPR은 비영리조직체인 도서관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모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기본적 성격을 학교나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도서관의 PR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아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도서관 전문적 단체에 홍보 담당부서를 두고 도서관의 활동을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학교도서관과 같이 개별적으로 언론채널을 접촉하기 어려운 곳은 도서관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꾀하고 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절대적 관계나 프로그램 등을 사회 일반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혹은 이용자 계층별 홍보전략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이용대중과의 관계형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대학입시와 공교육의 약화된 위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변화된 대학입시와 그에 골몰하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이 입시의 절대적 자료가 되는 수행평가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리고 이를 위한 도서관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하여 이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2)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공략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이것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사, 농, 공, 상이라 하여 학문을 하는 선비계층을 가장 귀히 여기던 사회의 신분제도와 과거제도의 전통이 현대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자식이 결혼하도록까지 독립시키지 않고 뒷바라지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한국 어머니의 모성에 및 이것의 과잉화된 현상으로서의 치마바람이 한데 어울려 빚어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열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비뚤어진 교육열의 과잉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적성이나 가치관, 희망 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을 가려고 하고 학과와 상관없이 명문대학으로만 진학하려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교육현상으로서의 공교육의 무력화, 사교육의 열풍, 성적위주의 교육열로 인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독서활동 경시 및 도서관의 공부방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입시준비를 위한 공부방 현상은 학교도서관운동이 쇠퇴되어 가던 1970-80년대에 심화되어가다가 1990년대에 참교육운동이나 전교조운동 등 교육계에서의 변화와 학교도서관계의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언론을 통한 학교도서관캠페인과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전개 등에 힘입어 새로운 학교도서관 운동의 재정향을 가져오게 된다(김종성, 2000, 241-282).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침체를 가져온 이유중의 하나인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 발전의 한 전략으로 삼자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명문대학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나타나게 된 입시준비의 심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입시제도의 변화로서 수행평가를 시행하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과정을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노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행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사실 대학도서관과 같은 곳은 학생회에 의한 실행행사를 통해 학생들 자신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표명하고 도서관을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²⁾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므로 그러한 집단적 의사표명은 어렵다. 차라리 그들 부모들을 학생들의 대변인이 되도록 설득하여 사서교사의 중요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의 연대활동 등을 꾀하는 것이다. 나는 1999년 9월에 상기 단체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본 단체의 주최로 열린 학부모도서관 사서교사 교육과정³⁾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2) 1987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하여 2년간 지속된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것은 '김정근(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을 참고한다.

3) 1999년9월28일-10월8일의 기간중에 5회 과정으로 열린 이 강좌는 '학교도서관에서 "꿈" 찾기'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었으며 경기도 과천도서관 시청각자료실에서 열렸다. 필자가 담당한 '교수-학습의 장으로서의 학

있다. 이때 학부모들의 참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였지만 도서관과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 의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기여도에 대한 인지도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 참여한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낮았다. 또 이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도서관을 자습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자녀들의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놀라워하면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과 강좌가 끝난 후 학교도서관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을 토론하는 학부모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볼 때 학부모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독서를 통한 인격함양과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의 전통적이면서도 영구한 가치관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교실과 마찬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공간이며 정보자료의 보고라는 것,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곧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효용가치는 곧 자녀들의 대학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학부모로부터 시작되는 학교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학교도서관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저변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을 형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도 개선과 정책 확립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적요소중의 하나는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법률상의 규정과 중앙교육행정 당국의 지도체제 등 교육계의 제도개선과 정책확립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공교육기관에 부설된 시설이므로 교육법이나 공교육을 위한 행정적 제도, 정책에 따라 도서관 발전이나 운영방향 또는 봉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제도적 문제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문제제기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학교도서관대회, 사서교사 연수회, 도서관 관련 학술지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연구자나 현장의 관계자들이 꾸준히 그것을 지적하고 건의하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별로 개선된 것

교도서관운영방안'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살리기I-전산화의 필요성, 비용/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살리기II-문열기/공간과 시설/예산' -이상 이덕주 담당. '학교도서관 꾸미기III-학교도서관에서 자료찾기'-서경은 담당. '학교도서관탐방' 등의 5개 주제로 꾸며진 이 강좌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부모들의 의식이 깨여있는데 비하여 학교교육 현장이 얼마나 뒤쳐진 사고방식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기억한다.

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로 사서교사로 은퇴한 박용두선생은 1991년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1세기 학교도서관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아진바 없는 학교도서관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위하여 그래도 여전히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건의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함께 현실적으로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허망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장하게 표현하고 있다(박용두, 1991, 352).

“...막상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려 하니 후배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주제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쓰디 쓴 웃음을 먼저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21세기 학교도서관정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주장하려면 우선 학교도서관으로서의 필요한 기본요건(시설, 자료, 사서교사 배치)은 어느 정도 갖추고 그후에 현 상태보다 더 나은 도서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필수 기본시설이면서도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소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는 한국에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함은 마치 허공을 치는듯한 공리공론이 되지않을까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학교도서관 선배님들과 이에 관심깊은 분들이 과거 40여년간 한국도서관협회 대표자와 이 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하여 거의 매회 '학교도서관 기능 정상화 방안'을 제시, 주장, 건의하여왔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국회에 청원까지 한바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절실한 목소리들은 '21세기 학교도서관 정책'과 전혀 무관한 한탄에 불과했던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의 그 애절한 교육적 호소는 모두 21세기를 겨냥한 주장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그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도협월보나 도서관문화 등 도서관 관련자료에 게재된 학교도서관 논제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주제, 교육부 관련자료에 발표된 학교도서관 활동 관련문건 등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설치나 시설 설비령, 사서교사 배치나 자격기준 등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나아진 바 없는 변천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한 표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박용두, 1991, 353-361). 그러나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이같은 건의나 지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⁴⁾.

이처럼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학교도서관대회, 사서교사 연수회, 도서관 관련 학술자료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계속 토의되어 온 것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하고 확립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보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4) 이후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건의 등이 나타난 자료를 보면 변우열(1993),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제문제, 도서관문화34(4),11-24./ 한운옥(1995), 학교도서관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서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03-115./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연구팀(1997),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이덕주(1999), 영어과 한선생 이변학기에 국어 좀 가르치죠?, 함께 여는 국어교육 가을호, 192-210. 등이 있으며 상기 자료 이외에도 상당수 있으나 생략한다.

1) 학교도서관 관련법규의 정비와 학교도서관법 제정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제반 법규의 문제는 학교도서관 설치의무화, 도서관 시설과 설비의 기준설정, 자료의 기준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과 학교교구 설비에 관한 규칙 등에서 다루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법규를 개정하면서 실행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야기 하면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 덴마크의 학교도서관이 1993년에 새롭게 제정된 Primary Education Act에 의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Svane-Mikkelsen, 1997, 53)는 것을 모범적 선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사서교사의 정원배치와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

학교도서관의 3요소는 시설과 자료, 사람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친다. 그런 만큼 학교도서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건의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이다.

우선 사서교사의 자격이나 배치, 신분상의 문제 등과 관련된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들은 모두 교육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양자 모두의 하위항목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박용두, 1991, 19-23/ 변우열, 1993, 11-24/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연구팀, 1997, 31-58). 한가지 그나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서교사가 정원 외 정원으로 되어 교과목 담당교사의 정원과 상관없이 교장의 의지에 따라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1998년에 오래만에 교사임용고시에서 사서교사 분야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멀고 먼 향로의 지극히 미미한 출발에 불과하다. 강제성이 부과된 사서교사의 각급학교 배치를 위한 법령의 제정,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야 하는 1, 2급 사서교사의 자격구분이나 승진문제 등에 관한 법규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부내의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이 문제 역시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건의되고 논의되는 문제이다. 도서관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지만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기관 내에 존재하는 도서관이라 교육부에서 계속 정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업무 소관부서가 없다. 1996년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정보자료담당관실이 잠시 존재하였다가 다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4) 장학지도 체계의 확립

학교도서관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체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 학교도서관계에서는 이것을 계속 건의하여 왔지만 실제 우리나라 교육행정당국에 장학사가 있어서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도할 수 있었던 시기와 지방은 1963년에서 1966년까지의 4년으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한곳에 불과하다(김종성, 2000, 33/ 131-132).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학교도서관계의 발전을 보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장학체계의 확립이 학교도서관 현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당국에 학교도서관 담당부서와 전문 장학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현장의 리더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5) 도서관 운영예산의 확보 및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미래의 도서관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의 타당성을 획득하여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서개발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점 강화를 위한 컴퓨터 통신기와 시설, 환경구성을 위한 설비 등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는 미천하기 이룰데 없다. 1966년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에 보면 장서확충을 위한 자금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도비로, 사립학교는 법인비를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충실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김종성, 2000, 142). 이러한 현상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2년 앞당겨 모든 교사와 교실에 PC를 보급하도록 천명하였지만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 정보화담당자들은 소프트웨어 등의 소요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차 있고(조선일보 2000.1.11. 25면) 중앙부서에서의 학교도서관 재원마련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그나마 새학 교문화창조를 위해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운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 및 도서관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예를 소개한 것이 예산에 관한 관심표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이덕주, 1999, 194-196). 최근에는 1996년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멀티미디어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1997년에는 교육정책과제로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연구까지 행하여졌지만 2000년 1월에 들어선 요즈음까지도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배정되고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그나마 또 희망을 갖게 하는 한 요소는 2000년 1월30일 국영방송인 KBS1에서 저녁9시 뉴스시간에 '지식 정보사회의 중심기지'라는 도서관의 현실을 집중보도한 후에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정

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서도 역시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대를 해 볼만은 하지만 걸모습으로 몇대의 PC만 갖추어진 정보화가 아니라 진정한 도서관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내실화된 정보화가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체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고 교육부나 각 시, 도 교육청과 같은 곳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시킴으로서 한시적 정책에 의한 예산배정이 아닌 재정보호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운영자인 사서교사가 배치되면 다음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사이버 교육을 대비한 도서관의 변혁으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닦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꼭 필요한 도서관 역시 학교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학교도서관의 변혁을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로 삼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교육정보화를 교육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캐나다는 CFS(Computers for Schools)라고 하는 학교컴퓨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남미의 칠레는 전국의 교육기관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는 '접속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계획 하에 민간단체와 정부간에 긴밀한 협조를 벌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일본도 역시 문부성과 통산성의 협력 하에 지난 99년부터 'E-스퀘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즉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계속하고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사이버공간에 한데 모아 교육정보광장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국의 메릴랜드주는 1995년에 이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내 700여개 공립학교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 학교별 자체 네트워크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입, 교직원 훈련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Prime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지침아래 수행되는 것으로 2005년까지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모든 학교에는 ICT(정보통신기술)학습자원실, 미디어실, ICT네트워크가 100% 완비된다고 한다(조선일보 2000.1.11. 25면).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교육정보화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1996-7년경부터였고 그나마 예산의 부족 등으로 추진속도나 질적인 면에서 앞의 국가들이나 핀란드와 같은 정보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뒤떨어져 있지만 그런 만큼 첨단적인 정보화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정부 주도하의 교육계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 교육행정기관, 초·중등 학교, 대학교, 교육학술정보원,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되는 교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것과 함께 각급 학교별로 학교도서관을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로 삼아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 비해 이들의 생명주기는 오히려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는 도서관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닦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도서관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는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정보화가 필요한 것은 디지털문화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주 정보자료는 인쇄매체이지만 디지털문화가 21세기를 주도한다고 보았을 때 비교적 보수적인 출판계도 역시 그 흐름을 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음악시장에서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MP3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고 온라인 영화관도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종이로 된 책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책을 통째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새로운 책의 출판유통의 변화도 곧 닥쳐올지 모른다. 이미 출판계의 일부에서는 e-book의 보급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아울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박은주, 2000, 47).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급 학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1) 각 학교 단위별 도서관의 자동화

우선 미흡한대로 학교도서관별 정보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자동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소장 자료의 전산입력과 검색, 대출과 반납의 자동화 등인데 이 작업은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도서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모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왕이면 통일된 MARC으로 입력함으로써 종래에는 각급 학교간의 정보 공유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들간에 협력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본다.

2) 학교도서관간의 전산망 구축과 인터넷 활용환경 구축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간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활용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쉽게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개별적 자율학습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정보탐색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교육정보 통계 등의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이루어야 한다.

3)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사이버화 한다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교과목별 시소러스의 개발과 같은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에서는 주제별 목록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가 강조되었지만 요즘의 정보환경 하에서는 각급 학교별, 각 교과목별로 단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한 교과단원별 주제표목어 혹은 시소러스를 만들어 학생이나 교사가 필요한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소장자료에 대한 주제표목어를 입력할 때 그것을 교과단원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각 사서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제표목어를 6XX 필드에 주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도서관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여도 실질적인 정보공유는 어렵게 된다. 물론 하루 한 시간이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또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각 교과목별 교수-학습자료를 찾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정보검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입력 및 검색어를 사용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검색어의 입력을 융통성있게 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것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 개발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으나 한국교육학술정보센터 같은 곳에서 연구진을 구성하여 이것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 전산망 구축에 이은 정보공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지역별 학교도서관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연구도서관의 설립

지역별 학교도서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학교간의 정보자료 공유 및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교육정보 유통망(2번 참고)이 형성된다면 문

제 될 것이 없을지도 모르나 지역별 정보망은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정보망과는 다른 의미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 바로 지역의 특성에 관련된 정보 때문이다. 또 각 지역별 교육정보망에는 중심거점이 될 수 있는 교육연구도서관을 각 지역의 교육청 내에 설립 운영함으로써 교사·연구자료와 같은 전문도서라든가 교수·학습자료 등 지역내의 학교도서관에 부족한 자료를 지원하고 정보제공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말하자면 집중형 협동체제의 지역 협력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최성진, 1992, 220-221)이 되는 것이다.

사실 기본도서도 제대로 없고 사서교사도 없는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면 이상과 같은 발전책은 허망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래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비를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교육정보화 추진 사업에 편승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도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내부환경

1.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학교의 교육목적과 지향하는 목적이 같다. 그런만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도서관 발전을 위한 외부적 환경요소들이 비교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내부적 환경요소들은 미시적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부환경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는 인적자원이다. 요컨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는 주축이 사서교사로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래동안 사서교사로 봉직하다가 참교육운동에 참여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5, 6대 위원장을 맡아 본 노조의 합법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정해숙선생의 진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학교도서관이 쇠퇴하게 된 것은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왜곡된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육개혁의 바람 속에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기여도를 높이며 사서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일반교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은 사서교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정해숙, 1999, 302-307). 학교도서관의 내부

적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실천항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교수-학습과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강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서의 열린교육 체제에서 필요한 협동교수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은 자료 탐구학습을 학습수단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서관과 일반 교과목 수업간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협력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과정의 지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서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까지 달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나는 이미 논문(한윤옥, 1995/ 1998)을 통하여 이것의 목적과 의의, 실시 여건과 계획과정, 사례탐구 등을 소개한 바 있지만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함께 동반자적인 위치(teaching partner)에 설 수 있게 되고 일반교사는 자료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수업부담을 훨씬 덜수가 있다. 또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습과정의 통제자라기 보다는 조연자이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되므로 학생들은 학습과정의 융통성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고,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 및 이용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ubber, 1989. 111). 결국 학생들은 학습경험에 대한 만족도 얻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학교 교육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수-학습 참여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 독서지도를 위한 봉사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지도와 관련된 봉사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되어 온 봉사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도서관 자체가 독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동기 유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사실 독서교육은 나날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정서의 순화,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바람직한 인격형성, 자각적인 생활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지도과정으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정보화 시대에 임하여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나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는 독서를 정보활용 능력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면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허병두, 1997, 210-213). 즉 정보화 시대의 독서교육은 종래의 인격형성과 수양이라는 차원에서 고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인 태도로 시도되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수집과 정리, 창출이라는 정보처리의 과정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독해지도에 머무르는 독서교육은 교육혁명과 정보혁명의 두가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국

어교과목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독서지도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독서지도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학교도서관은 독서지도의 방향을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며, 독서교육의 개념을 현실적인 요구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역할은 독서교육의 거점 추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유도, 통합교육적인 독서활동 강조, 미래지향적인 태도 중시 등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의 독서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가. 교과지도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전 교과를 통하여 독서지도를 하며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별로 교육계획을 짜도록 하며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교육계획에 따른 도서선정 및 수집을 하도록 한다.
- 나. 특별활동을 통하여 독서교육을 한다. 이를 위하여 독서와 관련된 특별활동 부서에서는 부서별 독서 교육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독서시간의 설정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역시 도서관에서는 이 계획에 따른 도서선정 및 수집을 해야 하며 특별활동 장소로서의 이용도 계획할 수 있다.
- 다. 독서관련 교내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도서관주간 행사나 독서주간 행사기간에 맞추어 모범 독서학생 표창, 독서 관련 표어 공모 및 시상, 독서 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 라. 독서교육 환경기반을 형성한다. 독서교육 환경기반의 형성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서실 자료의 확충 및 도서실의 멀티미디어화, 자료의 전산화 등이 될 것이며 신규 구입도서와 권장도서의 체계적인 소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의 개정, 도서관 이용방법 및 자료활용 방법의 지도, 독서교육 관련도서의 확보를 통한 독서 동기 유발, 교사에 대한 독서지도 연구자료의 제공 등이 이와 관련된 도서관의 봉사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3) 정보활용 교육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적 자질로서의 정보능력은 정보접근 능력, 정보분석 능력, 정보적용 능력, 정보평가 능력의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함명식, 1997, 147-148). 정보접근 능력은 컴퓨터 매체나 정보통신 매체 이외에도 각종 시각, 청각매체와 인쇄매체에 관한 접근능력 모두를 포함하며, 정보분석 능력은 자신의 정보요구, 정보과제,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정보접근 능력과 분석능력은 정보활용 교육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요즈음 학교교육 현장에서 많이 주는 과제탐구와 깊은 관

련성이 있다. 즉 과제탐구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며 찾은 정보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또 어떤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과제탐구 학습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곧 정보활용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활용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은 ① 정보의 판단, 선택, 정리, 처리능력 및 새로운 정보의 창조, 전달능력 ② 정보화 사회의 특징, 정보화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③ 정보의 중요성 인식, 정보에 대한 책임감 ④ 정보과학의 기초 및 정보수단(컴퓨터 등)의 특징이해, 기본적인 조작능력의 습득이다(고도정보화 추진협의회 연구팀, 1996).

정보활용 교육은 교육과정 전체에서 추구하는 정보화 교육과 멀티미디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도서관 이용교육으로 이를 수 있다. 즉 학교도서관에서 일반도서는 물론 사진, 잡지 등의 전자화된 매체, 인터넷, PC 통신 등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학습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교과목과 연계된 인터넷 활용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 교육을 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의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전체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학교도서관의 봉사프로그램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금옥여자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은 이미 정보 관련 교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넣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감 인정교과서(김용철 외, 1995)도 발간되었다. 이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수업을 위하여 사서교사들이 자칫 학교도서관을 방치할 염려가 있지만 학교도서관과 정보 교과목의 수업을 양립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학교도서관에서 협력교과목으로서의 정보교육을 봉사프로그램으로 설치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 교과목으로서가 아닌 정보교육으로 각 교과목과의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자연스럽게 사서교사가 관련 교과목과 관련시켜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경우 학교도서관의 관리나 봉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보교육 측면에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설치하여 교육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보강시간, 또는 특별활동을 이용한 정보교육 등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충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특정 컴퓨터를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CD-ROM을 활용하도록 한다거나 PC 통신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도서관의 일상적인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보 활용능력의 배양 교육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소유보다는 접근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상의 정보교류와 이용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은 과거 문자해독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획득의 수단으로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 교육을 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의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전체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학교도서관의 봉사프로그램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자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나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가장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2. 21세기의 사회적 특성과 학교도서관 봉사의 개발

21세기의 문명과 문화에 대하여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매스 미디어가 사라지고 수천개의 마이크로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문화 유통도 결국 인터넷의 특징인 개인화와 마이크로화라는 큰 물줄기를 따라 혁명적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00.1.11.40면). 그렇다면 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 것인가?

개인화와 마이크로화, 쌍방향성은 모두 21세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도서관봉사의 쌍방향성 확립

종래의 도서관은 매스적이고 일방향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의 선택과 수서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서개발만 해도 개개인의 요구나 특성에 맞춘다기 보다는 도서관이 속해 있는 모기관의 전체적 이용자 성격을 규정한 후에 사서들이 자료를 선정한다.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매스적이고 일방향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것을 개선한 것이 희망도서관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 이른바 쌍방향 장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여 이용자와 사서가 수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이버 상에서의 토의 결과가 장서개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서개발 이외에도 도서관에서의 어떤 업무과정을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쌍방향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 봉사의 개성화

도서관은 정보활용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평생교육 기반을 잡아 주는 곳이다. 개개인의 학습활동을 도와주고 개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지극히 개별화된 봉사가 가능한 기관이라는 것을 뜻한다. 한편 학교도서관은 한 학급, 학년,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집단적이고 일률적인 봉사도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봉사프로그램과 함께 집단에 소속된 개개인의 개성이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서는 이용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이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터뷰 기법을 익힘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매스보다는 마이크로가 지배하는 21세기의 사회적 특성 속에서 컴퓨터와 함께 성장하는 N세대의 개성을 강조하는 특성 때문이라도 학교도서관은 더욱 개인화된 말하자면 주문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힘써으로서 도서관 봉사를 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봉사의 마이크로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봉사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성화 시켜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또한 마이크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그 개인에게만 맞는 개성적인 봉사는 미세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필독도서 목록을 제공한다고 할 때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의 입장이나 형편, 수준, 능력,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도서 자체의 조건만을 고려하여 양서라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유포하는 일종의 매스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도서관협회에서 개발한 인터넷상의 독서서지정보시스템 BIGBOOK (<http://211.33.126.66/bigbook>)과 이것의 인쇄판인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편-'(한국도서관협회, 1999)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록의 봉사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고 싶었던 상황과 함께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는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묻는 설문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에 의하여 그대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 자료를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분석하는 한편 기존의 추천도서 목록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그에 맞는 도서를 최종적으로 선별, 작성한 목록이므로 쌍방향성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것에 의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상황과 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성화된 봉사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마이크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봉사는 최근에 강조되는 정보환경 하에서의 콘텐츠 개발의 좋은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이외에도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마이크로화 같은 것을 연구개발해 봄직하다. 이런 것이 모두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IV. 나오는 말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사회문화의 보존과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해온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은 앞으로의 세기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세대로서 그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용성있는 투자가 될 것인 만큼 학교 교육의 심장부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은 다른 어떤 도서관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학교도서관은 사회적 무관심과 교육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발전 지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을 ①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② 디지털문화혁명에 의해 나타나게 된 새로운 제 양상들이라고 보고,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적 학교도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였고 외부적 요소로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개선과 정책확립,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로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가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상기 요소들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내부적 요소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에 맞는 도서관 봉사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비록 학교도서관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소외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을 이유로 현실 안주 내지는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새로운 세기의 첫머리에 임하여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사서교사들과 도서관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앞에서 검토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 현실적 문제와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여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기간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분위기와 봉사내용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이 진정한 학교교육의 심장부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고도정보화 추진연구팀 윤희(1996), 학교교육 정보화,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정근(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 김종성(2000),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8), 지식혁명보고서,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박용두(1991), 학교도서관의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문화 32(6), 6-29.
- 박은주(2000), 디지털출판과 전자책, "e-book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자료집, 4-7.
- 변우열(1993),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제문제, 도서관문화 34(4), 11-24.
- 변우열(1999), 학교도서관의 마케팅전략,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0(3), 151-173.
- 선우동훈, 박기순, 김희진 엮음(2000), 21세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두범(1991), PR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출판.
- 이덕주(1999), 영어과 한선생 이번 학기에 국어 좀 가르치죠? 함께 여는 국어교육 가을호, 192-210.
- 전석호(1997), 정보사회론, 서울 : 나남출판.
- 정익준(1999), 비영리조직 마케팅, 서울: 영풍문고.
- 최성진(1992),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연구팀(1997),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한국도서관협회(1999), 국민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 시스템 개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구보고서.
- 한윤옥(1995), 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9집 257-279.
- 한윤옥(1998),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233-257.
- 함명식(1997), 정보와 매체교과를 통해서 보는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의 교육적인 역할 -적극적 참고봉사로서의 정보와 매체교육-, 도서관52(4), 143-181.
- 허병두(1997),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연구, 도서관 52(4), 182-220.
- Dubber, Geoffrey. 1989. "Teachers and librarian-Working together with resource based learning-The challenges and the difficulties" *Public Library Journal* 4(5).
- Svane-Mikkelsen, Jorgen(1997), *The library system in Denmark*, Copenhagen, Royal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